



'제주의 봄' 부르며 음악 축제 기지개

"'김택화' 브랜드 가치 알리는 데 힘쓸 것"

제주음협, 28일 아트센터서 '신춘음악회' 올해 첫 행보
'제주음악제' 시작... "다양한 기획으로 힐링 시간 마련"

제주의 음악인들이 새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제주의 봄을 재촉하는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주음악제'의 문을 연다.

(사)한국음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오능희, 이하 제주음협)는 2월의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봄을 알리는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제주음협의 첫 행보이자, '제주음악제'의 시동을 거는 연주회다.

제주음협은 '2021 제주음악제'의 단일 공연 경험을 살려 지난해 보다 조직화해 한 해 동안 '음악축제'인 '2022 제주음악제(Korea-Jeju Music Festival(K-JMF

))'를 벌였다. 다양한 음악회를 비롯 문화예술포럼, 창작오페라 '홍윤애' 하이라이트 공연 등 연중 다채로운 행사로 도민과 만났다.

올해도 이어지는 '제주음악제'는 상반기 신춘음악회를 시작으로, 신인음악회 오디션, 대구-제주교류음악회, 제주전국학생음악콩쿠르, 신인음악회, 콩쿠르입상자음악회 등이 예정돼 있다.

'제주를 담은 향기'란 주제를 단 올해 신춘음악회에는 서귀포관악단 트레이너 김동원 지휘자를 필두로 '카리스 챔버 오케스트라', 플루티스트 김은혜, 어린이 합창단 '클럽 자자'를 비롯해 협력단체인 (사)성악협회 제주지회 회원들로

구성된 8명의 성악 앙상블(한소영, 공현진, 김지은(소프라노), 박태진, 최재호, 송영규(테너), 한진혁, 오준희(베이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날 공연엔 '트로트 마술사'라고 불리는 마술사 김민형이 출연해 이색 볼거리를 선사한다. 마술사 김민형은 '카리스 챔버오케스트라'와 함께 봄의 소리를 마술 퍼포먼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카리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으로 문을 여는 신춘음악회는 전 출연진이 함께 하는 '우정의 노래'로 막을 내린다.

오능희 지회장은 "봄의 소리를 음악으로 전해드리고자 한다"며 초대장을 띄웠다. 그리고 "신춘음악회를 필두로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도민 여러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일평생 제주의 풍경과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던 화가 김택화(1940~2006). 이제 그의 작품을 도록으로 마주할 수 있다.

230여 점의 유화 작품이 수록된 김택화 풍경화 컬러도록이 발간돼 지난 25일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 위치한 김택화미술관에선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도록은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 2022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지원사업을 통해 펴낸 '故 김택화 작가' 도록에 미술관이 선정한 오승익의 작가론, 전은자의 작품론, 김유정의 총평 등이 담겼다.

이날 이승연 관장은 인사말에서 "김택화미술관 개관 3주년을 맞아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미술협회의 도움으로 김택화 화백의 최초의 컬러도록이 출간됐다"며 김택화 화백에게 보내준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이 관장은 "올해 김택화미술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준비



고 김택화 작가 풍경화 컬러도록 발간... 25일 출판기념회 3-4월 중 김택화미술문화재단 설립 "새로운 도약 준비"

하고 있음을 밝히 눈길을 끌었다. "이제는 김택화 화백 한 사람의 인물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생 국전 수상자이자, 제주출신 최초의 현대미술 전공자라는 브랜드로서 제주시 차원의 공적인 조명이 필요한 시기"임을 피력한 이 관장은 "김택화미술문화재단은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이라는 생전 김택화 화백의 말씀을 새기고 '제주 고유의 풍경과 김택화'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

는 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4월 중 '김택화미술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김택화미술관은 김택화 화백의 주 활동무대였던 제주시 원도심에서 전시, 교육 활동을 추진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 관장은 재단이 설립되면 김택화 화백과 관련한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기획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획·제작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높음'이 29%로 조사됐다. '보통'은 11%, '낮음'은 2%, '매우 낮음'은 1%였다. '정보 접근성 만족도'도 '매우 높음'이 47%, '높음'이 26%였고, 향후 재방문 의지도 '매우 높음'이 62%, '높음'이 21%였다. 주변 추천 의향은 '매우 높음'이 61%, '높음' 23%로 나타났다.

2개의 주제관(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과 4개의 위성전시관(제주국제평화센터, 삼성형, 가파도 AiR, 미술관옆집 제주)을 찾은 방문객은 총 7만3574명으로 집계됐다. 미술관에 따르면 주제관에 누적 6만 4093명이 찾았고, 이 중 도민은 17%인 1만1435명에 그쳤다.

이나연 도립미술관장은 향후 도민 관객 확보를 위해 도민교육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비엔날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 다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한 이 관장은 제주비엔날레가 보다 성장하기 위해 다음 제4회 비엔날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제주의 인재를 양성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은지기자

제주비엔날레 관람객 만족도 높아

도립미술관 23일 결과보고회 상설조직·도민 관객 확보 등 지속가능한 개최 위한 과제

최근 막을 내린 제3회 제주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비엔날레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속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상설조직 운영 및 도민 관객 확보는 풀어야할 숙제다.

지난 2017년 첫선을 보인 후 5년 만에 다시 빛을 올린 제주비엔날레. 지난 12월 8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제3회 제주비엔날레 결과보고회가 지난 23일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결과보고회에선 비엔날레 기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136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제주비엔날레 만족도'는 '매우 높음'이 56%,

다시 만난 '순력'에 쏟아진 박수 문화예술진흥원, 작품꺼내기 시동

새 수장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이 도립무용단의 제주문화콘텐츠를 반영한 작품 꺼내기에 시동을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초 제주도립무용단이 정기공연으로 선보였던 창작무용극 '순력'이 지난 25일 다시 도민과 만났다. '순력'은 제주의 보물 '탐라순력도'를 바탕으로 320년 전 그림 속 기록이 현대적인 관점과 해석으로 거듭난 도립무용단만의 컨템포러리 전통무로 재탄생한 작품이다.

초연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 '순력'은 '바람의 기억'이란 부제가 달렸다. 주제와 음악, 무대, 내용 면에서 한층 진화시킨 이번 공연은 궁중정재의 하나인

'선유락'과 '태평무', '구름검무'를 비롯해 제주 무속굿에 쓰이는 '연물복'이 펼쳐지는 등 화려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특히 '굴림풍악'에선 굴을 담은 여인들의 싱그러움 모습 속에 한양에 진상하기 위해 고단한 노동을 했던 제주 여인들의 애환이 숨겨져 있음을 담아내 인상적이었다.

다만 한 무용계 인사는 "해녀춤의 현대화 시도가 좋았는데 그런 제주색이 드러나는, 제주만의 색깔이 조금 더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했다.

이번 '순력' 리뉴얼 공연을 시작으로 도립무용단의 제주문화콘텐

츠를 반영한 작품들이 다시 무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김태관 제주문화진흥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도립무용단이 갖고 있는, 그러나 묵혀있는 제주 소재 콘텐츠를 꺼내 성장시켜 '브랜드화'하고, 지속적인 공연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며 "제주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창작 무용작품으로 지역 브랜드 공연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제주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 동안 도립무용단이 선보인 제주문화콘텐츠를 반영한 작품은 '자정비-오름에 부는 바람'(2018), 4·3 70주년 기념 특별공연 '지달립서'(2018), '이어도 사나'(2019)와 이를 수정·보완해 무용단 고유 레퍼토리를 추진한 '이어도사나-생명편'(2020), '녹담'(2021) 등이 있다. 오은지기자

2023년 새해맞이 노비타 비데 특별 기획전

2023.01.17 - 02.28

<p>① 스마트플러스비데 BD-AC50N</p>  <p>4만원 할인</p> <p>239,000원 199,000원</p> <p>#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p>	<p>② 3년무상A/S BD-AFE50N</p>  <p>7만원 할인</p> <p>299,000원 229,000원</p> <p>#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p>	<p>③ 살균비데 BD-H500E0</p>  <p>4만원 할인</p> <p>335,000원 295,000원</p> <p>#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자동노즐세척 #강력방수</p>	<p>④ 살균비데(리모컨) BD-H700H0</p>  <p>5만원 할인</p> <p>419,000원 369,000원</p> <p>#매일자동살균 #세가지수류 #3D무브 #강력방수</p>
---	--	---	--

구입문의 | 제주총판 및 A/S센터 064-758-0991 주소: 제주시 연삼로17